



F.B.I EXECUTIVE REPORT

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



Hanyang Univ. School of Business

FOREIGN BUSINESS INTELLIGENCE



Contents March 27, 2013

Biweekly Report

- 2** The Stock Market and the Economy's Apparent Disconnect
임소연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- 5** Across Africa, Banks Are Expanding. Their Returns Aren't
김령래, from The Economist
- 8** The Tally: 2,952 to 1. What's Behind the Single Vote against China's Xi Jinping?
정근우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- 11** Spanish Magazine Publisher Bets against the Crisis
강민경, from The New York Times
- 14** Twist-Ties vs. Plastic Clips: Tiny Titans Battle for the Bakery Aisle
박은영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- 18** Micro-Apartments in the Big City: A Trend Builds
진나현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
Special Report

- 21** U.S. Is Bolstering Missile Defense to Deter North Korea
김영봉, from The New York Tim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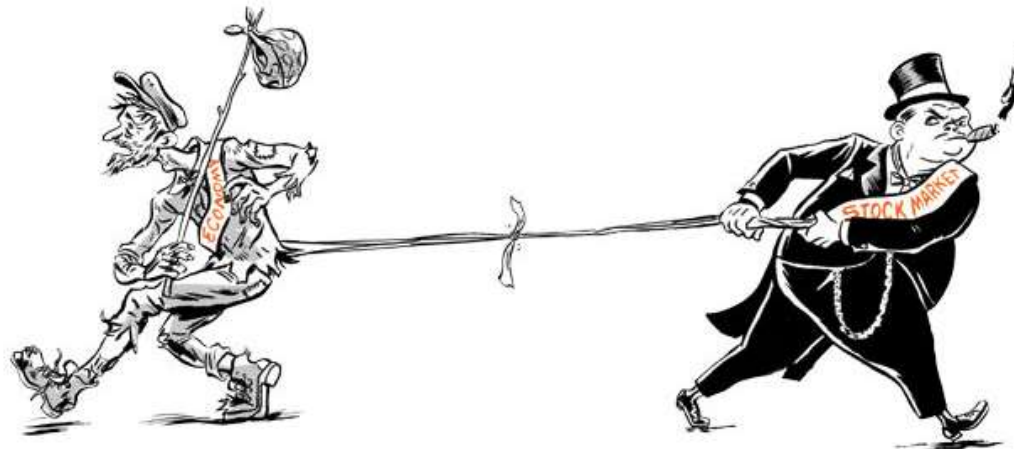
The Stock Market and the Economy's Apparent Disconnect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3.14\)](#)

* 요약자: 임소연 (cian92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주식시장, 경기, 상관관계

“주식 시장으로 경제 읽기, 그 상관관계는?”



□ **주식시장과 경제의 관계는 느슨하면서도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는 네트워크라고 표현할 수 있음**

- 한 경제학자는 두 개념의 상관관계를 '느슨한 밧줄의 양끝에 묶여 있는 두 주정뱅이'라고 묘사
- 이는 주식시장과 경제 사이에 정(正)의 상관관계가 있으나, 때로는 정반대의 상황 또한 연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
 - 그 예로 실업률이 높고 기업 수익은 감소하며 연방 지출이 줄어드는 불경기에도, 다우지수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있음

□ **단순한 주가의 상승으로 경제가 낙관적이라는 판단은 할 수 없음**

- 주가가 오를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은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 시장의 성장과 국내 임금의 동결 때문
-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미국 중산층의 소득은 2013년 1월 기준으로 4년 전인 2009년 4월 대비 4.5% 하락
- 경제 산출량 또한 잠재 수준보다 낮고 실업률은 7% 이상을 유지하므로 경제상황을 낙관할 수 없음


□ **금융권 움직임의 변화와 국민들의 주관적인 생각은 경제상황과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에 영향을 미침**

- 거대 은행들이 자본을 가계나 기업에 분배하는 대출보다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개발하는데 집중
- 기업은 이 때문에 자금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으며, 이는 해외 진출을 유도하여 경기 악화의 악순환을 야기
- 주가가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오르는 현상은 국민들의 주관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음
 - 자신의 의견을 고려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구매

□ **주식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안주하는 것**

-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2008년 금융위기는 모두 끝났다고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며,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 상황과 유사
- 설령 주가가 안정적이거나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버블 현상을 조심할 필요가 있음

□ **주식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를 유도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며, 경제상황과의 상관관계 또한 부정할 수 없음**

- 극소수의 회사들만이 투자금을 모금할 수단으로 주식을 이용하며, 가계들 또한 주식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선호
- 그러나 주가상승은 CEO가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며, 경제를 활발히 움직이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음
-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, 결론적으로 주식 시장과 경제 상황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

Across Africa, Banks Are Expanding. Their Returns Aren't

* 기사출처: [The Economist \(2013.03.02\)](#)

* 요약자: 김령래 (rlafudfo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아프리카 은행, 투자

“아프리카 투자에 대한 기대와 은행의 미래 지향적 접근”



□ 투자자들이 현재의 실적에 불평하고 있을 정도로 아프리카 투자의 고수익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상승 중

– 남아프리카 글로벌 투자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실적은 주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

- 아프리카에서 은행들이 지점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확장하는 모습에서 주주들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가 발생

□ 아프리카 은행 시장은 잠재력이 크나 현재는 미개척 상태이며, 앞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은행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
- 아프리카 대륙의 은행 보급률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세네갈과 탄자니아의 경우 실질적 은행 보급률이 낮음
 -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성인의 25%가 공식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오직 3%만이 신용카드를 소유
- 은행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시점은 1인당 GDP가 10,000달러에 이르는 지점이며, 선불카드와 모바일 뱅킹 같은 기술이 진출을 가속화
- 마스터 카드와 같은 기업의 확장과 은행 기술의 상업화는 이전에 국제 은행들에게 밀렸던 국내 지역 은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
 - 아프리카 시티그룹의 사장 나비드 리아즈는 신용카드와 모바일 뱅킹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상 복잡하지 않다고 언급


□ 아프리카의 은행들은 시스템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 경쟁에 집중하고 있음

-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여 아프리카 소매은행이 비용을 수입 대비 30%까지 감축할 수 있음
- 남아프리카 스탠다드 बैं크는 아프리카 18개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Eco은행은 32개국의 비즈니스와 함께 범아프리카 (Pan-Africa) 은행으로 성장하고 있음
- 아프리카 은행들의 성장은 최근 일부 국제 은행의 긴축에서도 기인함
 - 프랑스 은행을 괴롭히던 달러 자금의 동결로 많은 은행들이 프랑스어권인 서부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을 줄이고 있음

□ 또한 금융위기로 인해 지역은행들이 해외보다 아프리카에서의 확장에 집중하고 있음

-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중간 조직으로서 경쟁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본을 아프리카 대륙으로 재투입 중
- 많은 은행들이 위기 이후 아프리카 시장에서 소매시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음
 - 소매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주로 상향식 전략을 채택
 - 현지에서 예금을 예치하고 기업고객과 대면하며 지점네트워크를 형성

□ 국제은행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으며,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음

- 시티 은행과 같은 대형 은행들은 하향식 접근을 채택하여 정부와 큰 회사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
-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소매를 제공하고, 기업금융서비스를 많은 나라에 제공하여 세계 자본시장에의 접근을 함께 시도하고 있음
- 달러의 불확실성과 같은 위험 속에서 높은 수익 보장을 확신할 수는 없으나, 위험(risk)에 대비한 은행은 아프리카 시장에서 성공할 것으로 예상됨 

The Tally: 2,952 to 1. What's Behind the Single Vote against China's Xi Jinping?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3.15\)](#)

* 요약자: 정근우 (monhghg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**시진핑 국가주석, 득표율**

“2,952대 1, 시진핑이 얻은 단 하나의 반대표에 숨겨진 진실”

□ **지난 3월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현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이 중국의 새로운 국가주석으로 선출됨**

- 시진핑의 국가주석 취임은 지난 2012년 그가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되면서 이미 예견된 바 있음
- 이로써 시진핑은 당(총서기), 정(국가주석), 군(군사위원회 주석)의 세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데에 성공

□ **시진핑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유효투표 2,956표 중 찬성 2,952표, 반대 1표, 기권 3표를 받아 무려 99.86%에 달하는 득표율을 기록**

- 전인대(전국인민대표대회)의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득표율은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중국인들의 민심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어 왔음
 - 이번 시진핑 주석이 달성한 99.86%의 득표율은 중국 정계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줌
- 99.86%의 득표율은 지난 1993년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중국 국가지도자 선출투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
 - 1993년 장쩌민이 국가주석에 선출될 때에는 반대 35표와 기권 25표를 받음
 - 2003년 후진타오가 선출될 당시에는 반대 4표와 기권 3표가 나옴

□ **시진핑이 얻은 높은 득표율은 일부 전체주의 국가의 독재자들이 보인 전례와 유사**

- 시리아의 현 지도자인 바자르 알-아사드는 지난 2007년 선거에서 97.62%의 득표율을 얻은 바 있음
- 지난 2009년 북한에서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북한의 전(煎) 지도자 김정일은 99.98%의 투표율과 100%의 찬성률을 기록


□ **한편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서 기권 및 반대표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당선자의 입지를 약화시킴**

- 지난 2003년 전인대에서, 중국의 전 국가주석 장쩌민과 친분이 두터웠던 쟁칭훙은 부주석으로 당선되면서 190표의 무효표와 177표의 반대표를 얻은 바 있음
- 결과적으로 득표율은 88%에 육박하였으나, 이는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득표율로 치부됨
- 결국 쟁칭훙은 임기 내내 낮은 득표율로 인해 불안한 입지를 유지

□ **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정치 의결 사항에 있어 만장일치를 추구**

- 마오쩌둥식 전체주의적 지배하에서, 중국 지도자들은 완전한 만장일치 득표를 요구
- 지난 1949년 중국의 초대 지도자 마오쩌둥이 국가 주석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단 하나의 반대표가 나온 바 있음
- 반대표의 주인공은 당시 존경 받는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장동선이었으며, 이후 그는 남은 일생 동안 심한 탄압을 받음

□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과거와 같은 철저한 통제력 행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

- 중국 정치 전문가에 따르면, 중국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
 - 최고 지도층이 단순히 다수 득표 확보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
-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중국 내부의 인권 탄압에 문제를 제기하고, 민주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
- 이에 따라, 중국 지도층이 일부 반대표를 통해 그들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의견도 존재
 -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이를 노리고 스스로에게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음 

Spanish Magazine Publisher Bets against the Crisis

* 기사출처: [The New York Times \(2013.03.17\)](#)

* 요약자: 강민경 (hannah1116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포브스, 스페인, 미디어

“금융 위기 속 포브스(Forbes)의 스페인 시장 진출”

- 스페인의 미디어 회사 ‘스페인미디어’의 발행인 안드레스 로드리게스는 이번 달 미국 비즈니스 매거진 포브스(Forbes)의 스페인어판 발행에 사활을 걸고 있음
 - 스페인미디어는 현재 허스트(Hearst)계 잡지인 에스콰이어(Esquire)와 하퍼스 바자(Harper’s BAZAAR), 롭 리포트(Robb Report)의 스페인어판을 발행하고 있음
 - 스페인미디어의 연 판매 수익은 천만에서 천삼백만 유로 정도이며, 로드리게스가 2년 전에 매입하여 개조한 인쇄소에서 운영되고 있음
- 스페인은 포브스의 서유럽 진출에 있어 첫 발판이 될 수 있으며, 그 진출 시기와 재정 사항이 주목됨
 - 현재 포브스는 이미 폴란드나 루마니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16개의 라이선스 잡지들을 발행하고 있음
 - 발행사의 전 세계적 성장을 담당하는 미구엘포브스는 포브스 잡지의 스페인 진출에 대해 “론칭할 타이밍은 시장이 회복의 과정에 들어섰을 때”라고 언급

- 미구엘포브스와 로드리게스 모두 스페인 진출에 대한 재정적인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
 - 이는 스페인미디어가 잡지 판매 수익과 광고 수익을 기초로 포브스에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포함

□ 금융위기로 인해 스페인의 많은 미디어 업계와 출판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로드리게스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함

- 유럽발 금융 위기로 인한 불황과 금융긴축 속에서 스페인의 많은 미디어 사업가들이 폐업
- 스페인저널리스트협회(Spanish Journalist Association)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수십 개의 스페인 출판 회사가 문을 닫았고 8천명 이상의 기자들이 실직함
- 반면 로드리게스는 금융위기에도 모험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

□ 로드리게스는 금융위기 일보 직전 미디어 벤처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꾸준한 수익을 창출

- 로드리게스는 신문 엘 파이스를 소유한 미디어 그룹인 프리사(Prisa)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에 독립을 결심함
- 첫 번째 돌파구로 허스트를 설득하여 에스콰이어 스페인어 판을 발행
- 금융 위기가 터지기 직전 은행에서 50만 유로를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음

□ 오히려 로드리게스는 종이기반(paper-based) 잡지 시장과 비즈니스 잡지 발행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

- 로드리게스는 종이로 된 제품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살아 있다고 믿으며, 종이 잡지 부문이 50년 전의 '황금 시대'로 돌아가고 있


다고 주장

- 당시 광고 시장은 급속히 성장했고 잡지는 포토저널리즘의 기준점이 됨
- 비즈니스 잡지 발행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스페인 역사 속에서 꾸준히 독자의 수요가 존재했다는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
 - 스페인 국민들은 언제나 경제위기와 그 영향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

□ 하지만 인쇄 잡지에서 디지털 잡지로의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

- 영국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는 작년 디지털 매거진의 판매 부수가 15퍼센트나 증가했으나, 이에 비해 인쇄 잡지의 경우 5퍼센트 하락
-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전체적으로 광고는 40퍼센트 정도가 감소
- 이에 대응하여 로드리게스는 킨들 및 아이패드용으로도 잡지를 발행하고 있음

□ 스페인어판 포브스는 미국판에 의존하지 않고 고유한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승산이 있다고 예상됨

- 스페인미디어는 80퍼센트 이상의 고유 콘텐츠를 생산하며 이것의 절반은 프리랜서의 보도에서 기인
- 미국판 포브스와 다른 제지원료와 커버 디자인을 선택하여 차별성을 지님
- 스페인어 판 포브스의 이번 호에서는 미국판으로부터 스페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 하나의 기사만을 선택하여 보도 

Twist-Ties vs. Plastic Clips: Tiny Titans Battle for the Bakery Aisle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3.13\)](#)

* 요약자: 박은영 (evenstar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작은 거물, 주도권 싸움

“승리자가 없는 작은 두 거물, 플라스틱 클립과 트위스트 타이의 주도권 싸움”



□ 유명 슈퍼마켓 브랜드인 아놀드사의 제빵 제품 포장 방식이 지난 여름부터 변경됨

- 제품을 플라스틱 클립으로 포장하던 방식에서 트위스트 타이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교체
- 소비자 선호가 클립 포장에서 타이 포장으로 변함에 따라 아놀드사는 타이 포장 방식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를 실시

□ 플라스틱 클립과 트위스트 타이는 비슷한 시기에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가 개발되어 라이벌 구도를 형성

- 1960년대 초반 Kwik Lok사가 제빵 제품을 클립으로 봉하기 위하여 자동화 된 기계를 개발
- 비슷한 시기에 트위스트 타이로 제품을 봉하기 위한 기계가 개발되어, 이후 두 제품은 경쟁을 지속해옴
- 두 회사의 경쟁은 코카콜라와 펩시, 맥과 PC의 관계로 비유됨

□ 그러나 경쟁의 승패를 판단할 자료가 없어 둘 중 명백한 승리자를 판가름할 수는 없는 상황

- 트위스트 타이로 공급하는 기업의 관계자는 그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소비자들이 그들의 제품을 더욱 선호한다고 주장
- 하지만 플라스틱 클립의 제조사 역시 소비자들이 자사 제품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
- 서로 자신이 승리자라고 주장하는 모순된 현상은 두 기업 모두 시장 점유율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서 기인
 - 트위스트 타이가 제빵류에 주도권을 가지는 반면, 플라스틱 클립은 번, 롤, 베이글, 잉글리쉬 머핀에 주도권을 가짐
 - 빵 종류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서부 해안에서는 플라스틱 클립이 우위를 차지


□ 이러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각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의 판매사원들은 병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자사 제품의 장점을 강조

- 트위스트 타이 기계를 파는 판매사원은 트위스트 타이가 비교적 저렴하며, 밀폐도가 더욱 뛰어나 빵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
 - 트위스트 타이로 포장 된 봉지는 플라스틱 클립과는 달리 풀어질 염려가 없어 안전
- 반면, 플라스틱 클립 기계 판매사원은 그들의 기계가 더욱 저렴하고 빠르게 작동된다는 점을 강조
- 또한 플라스틱 클립으로 포장 된 봉지 겉면에는 인쇄가 가능하여 가격, 날짜 등을 표기할 수 있고, 레시피나 프로모션을 담고 있는 바코드를 표기할 수 있음

□ 두 경쟁사의 시장점유율은 알 수 없지만, 이에 최종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들은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심리적 기제를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

- 트위스트 타이 포장 방식은 사용자의 약간의 노동이 필요한데 이는 제품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
 - 소비자들은 편리함과 완벽함 사이에서 본능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여, 손이 가더라도 봉지가 충분히 밀폐되는 것을 더욱 선호
- 또한 입증되지는 않았으나, 소비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들에 의해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하고 충실하게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

□ 이와 같은 플라스틱 클립과 트위스트 타이의 끝없는 경쟁은 50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

- 이 전쟁은 생산하는 데 크게 비용이 들지 않아 이목을 끌지 못하는 상품을 제조하는 이들 사이의 경쟁임
- 이들의 제품은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은 없지만, 매년 1,000만 달러 이상이 생산되는 제품들
 - 미국에서는 매년 72억 개의 제빵 제품이 생산된다는 사실과, 두 기업이 각각 50%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수치
 - 따라서 누군가는 이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, 기업들은 이 작은 제품으로도 생계를 유지함 

Micro-Apartments in the Big City: A Trend Builds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3.14\)](#)

* 요약자: 진나현 (skgus128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초소형 아파트, 1인 가구

“1인 가구 증대에 따른 미국 내 초소형 아파트의 인기몰이”

□ 최근 북미 주요 도시에서 대학 기숙사 방보다 작은 초소형 아파트가 급증하는 추세

- 도시에 전문직 종사자, 학생, 노인 등 ‘나홀로 가구’가 증가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어, 새로운 주택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됨
 - 뉴욕시는 전체 인구의 60%인 180만 가구가 1~2인 가구로 구성됨
 - 그러나 원룸형 아파트는 100만개 안팎에 불과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하며, 임대료도 가파르게 상승
- 초소형 아파트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15평 이하의 아파트 안에 모두 들어있는 형태
 - 소파의 쿠션을 치우고 벽장을 내리면 침대로 변하며, 그 침대의 뒷면을 돌리면 식탁이 되는 등 뛰어난 공간 활용이 특징

□ 이러한 혁신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아파트 최저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더 작은 아파트를 더 저렴하게, 더 많이 공급하는데 주력

-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지난 11월 가구당 최소 면적 기준을 27m²(8평)에서 20m²(6평)로 축소
 - 옷장, 주방과 화장실을 빼면 실제 생활공간은 약 14m²(4평) 정도

- 대부분의 가구가 12평 이상이었던 보스턴 시도 300가구에 한해 10평까지 축소하는 법안을 발표
-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에 힘입어, 밴쿠버의 개발자는 싱글룸 호텔을 8평 이하의 초소형 아파트로 개조했으며, 시애틀과 시카고도 이러한 흐름에 관심을 보임

□ 아비 프리드만 교수는 초소형화의 새로운 유행을 '북미의 유럽화' 현상으로 설명

- 영국의 가구 평수는 평균 25평에 불과한 반면, 미국의 평균적인 가구 평수는 무려 69평에 달함
 - 홈빌더(NAHB)는 2015년까지 이 수치가 60평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측
- 그는 멀지 않은 미래에도 초소형 주거 공간의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
 -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독신을 선택하거나 아이를 갖지 않으려 할 것
 - 대부분이 차 이용을 줄이고 통근 시간 감축을 위해 대도시 근교에서의 거주를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


□ 뉴욕시는 '마이크로 주거 공간' 디자인 공모전을 작년 9월 실시해 건설 시범 사업에 착수

- 뉴욕시도 기존 37m²(10.5평)이던 최소 면적 기준을 26~28m²까지 낮추고, 이 기준을 적용한 공모전을 실시
- 뉴욕시는 이 공모전에 출품된 33건을 바탕으로 2014년까지 원룸형 아파트 16만5000가구를 건설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

□ 효율성 측면에서 초소형 아파트는 분명 전망이 밝지만, 삶의 질이 악화된다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

- 전문가들은 초소형 아파트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인구 밀집 현상은 심화되어 교통 체증,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

질 것으로 예상

- 도심 과포화 현상으로 다시 아파트 설립 규정을 강화한 싱가포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
- 이에 전문가들은 신축을 일부 지역으로 제한하고 추가 연구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
- 건축가 테드 스미스는 싱글족들이 요리, 식사, 여가와 같은 활동에서는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 

U.S. Is Bolstering Missile Defense to Deter North Korea

* 기사출처: [The New York Times \(2013.03.15\)](#)

* 요약자: 김영봉 (saeruca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대북제재, 탄도미사일

“대북 미사일 대응체계 구축에 돌입한 미국”

□ 최근 북한은 서울은 물론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연일 핵미사일 공격 위협을 가한 바 있음

-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항상 있어왔으나 이번 경우 그 위험성이 예전보다 높음
 - 북한이 예전보다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
 -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한다는 점
- 특히 정전 협정을 파기한 점과 핵 선제공격의 내용을 담은 과대 선전으로 미루어보아, 현재 아주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

□ 북한의 기술력으로 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도달시킬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으나,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

-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의 마이크 로저스 전략무기소위원장에 따르면, 이제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- 실제로 지난해 12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 '은하-3호'의 잔해를 조사한 결과,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의도였다는 사실이 밝혀짐
- 또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장거리 미사일과 거의 개발이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동 미사일을 고려하면, 미국은 이제 사정권 내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음

□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국방장관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(GBI) 배치 계획을 발표

-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오는 2017년까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군 기지에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(GBI) 14기를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함
-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를 비롯한 미국 서부 해안에는 현재 미사일 30기가 배치되어있고, 14기를 추가하는데 10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
-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추적하고자, 일본에 레이더 시스템을 추가 배치하고 미국 MD 시스템과 연계하여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첩보위성 '지오 2'도 쏘아 올림
 - 북한에 정교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2중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

□ 또한 미국은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임

-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기 위해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

- 미국은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조치를 지속할 계획을 밝힘

□ 이러한 미국의 대응은 '공격적인 봉쇄정책'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며, 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함

- 이번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계획은 지난 11일 재무부의 금융 제재 방침에 연이은 적극적인 대응 조치
- 그러나 로버트 켈러 미국 전략사령관이 인정하듯, 일각에서는 현재 배치된 30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
- 그럼에도 미국이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은 물론이고, 국내외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

□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를 위한 미국의 조치는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도 있음

- 미국의 조치는 중국에게 '동맹국 북한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아시아는 미국 군사력 확장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'이라는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
- 또한 중국의 대북 인식 변화에 주목한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바램과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

□ 따라서 중국은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음

- 중국은 미국의 서부지역에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이 동북아의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신중한 행동을 촉구

- 또한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강화 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구실로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

□ 미국은 이러한 신경전을 이미 유럽에서 러시아와 겪은 바 있음

-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대비하고 유럽 동맹국들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요격용 미사일을 배치하고, 4단계에 걸쳐 업그레이드를 시도함
- 이에 대해 러시아는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 반발해왔고,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핵무기 추가 감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압박
 -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래로 요격 미사일의 추가 배치를 중단
- 한편 미국은 이 계획의 마지막 4단계를 취소하고, 투입될 비용의 일부를 이번 대북 미사일 추가 배치에 사용하기로 결정

□ 역사적 흐름의 변화와 최근 국방비의 대폭 삭감에도 불구하고,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래 처음으로 군사력 증강을 시작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

- 이는 북한의 도발을 기회 삼아 연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인한 국방비 삭감을 막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것
- 또한, 대폭적인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추가 배치한 것은 미국이 대외적으로는 부인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
- 미국이 동맹국에게 미국의 핵 억제력을 보여주고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목적도 포함된 조치

□ 한편 미국군축협회의 톰 콜리나에 의하면 미국의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의 성공률은 50%에 그친다는 문제점이 존재

–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의 효과가 불투명하여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임

– 미사일의 추가 배치에 앞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명중률을 높이는 연구와 실험이 필요함



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,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/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.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,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

한양대학교 경영대학

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(fbi.hanyang@gmail.com)

Advisor: 이웅희,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(victory@hanyang.ac.kr)

Editor in Chief: 김주찬 (kjcjuchan@hanyang.ac.kr)

Associate Editor: 김시연 (rea1200@hanyang.ac.kr)

Copy Editor: 이창석 (laims2@hanyang.ac.kr), 전주영 (junjy9111@hanyang.ac.kr)